제345회국회 (임시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8월22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통일부 업무현황 보고

상정된 안건

1. 통일부 업무현황 보고 ····· 2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견례를 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종석입니다.

저는 원래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공부하다 보니까 남북관계 이상의 경제정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에서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문제를 같이 토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감사합니다.

통일부 업무보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특위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3당 간사님들과 만나서 앞으로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 우리 특위를 포함해서 7개의 특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가 구성될 때부터 여러 언론에서 특위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남북특위는 16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년 꾸려 왔는데 매우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도 있었던 반면에 침체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특위만큼은 각당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누구보다 각별한 관심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만일 이 개선특위에서 현안을 논의하면 외교통일위원회와 상당 부분 업무가 겹치고 또 견해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공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안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자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의 합치를 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특위의 운영에 관한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서 우리 특위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산재해 있는 각종 현안들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우리 특위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고민하고 인식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통일부 업무현황 보고

(14시07분)

○위원장 이춘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일부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 교류·협력의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금강산관광 재개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관계 개선을 위하여 시급히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남북 당국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건이 좋지 못하지만 모든 역량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도 고립을 자초할 어떤 추가적인 도발을 포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회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용표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높은 식견과 경륜이 있으신 위원님들을 20대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연초부터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한 채 평화의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를 겨냥하여 갖은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는 물론 민족의 장래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일치된 입장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국회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통일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차관입니다.

김의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남중 통일정책실장입니다.

이무일 정세분석국장입니다.

강종석 교류협력국장입니다.

이상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입니다.

한기수 남북회담본부장입니다.

이금순 통일교육원장입니다.

임병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이정옥 남북출입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통일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서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7페이지 북한 정세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북한 정세입니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내외에 핵 보유 의지를 천명하고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선언하였습니다.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하고 김정은을 노동당 위원장과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여 김정은 유일지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아래 병진노선과 선군혁명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

으로 규정하며 조직 및 인사에 대한 정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선대의 유산만을 답습하여 현실과 괴리된 상호 모순적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경제성과 등 과업 관철을 위한 사상 무장과 노력 동원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충성을 강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사상교육 및 선전선동을 강화하는 한편,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외부 탓으로 돌리며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강력 제일주의, 200일 전투 등 속도전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내외 경제여건은 악화되고 주민 불만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면서 대외무역이 감소하고 외화와 물자가 부족해지는 등 경제적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치적성 건설사업에 전념하는 한편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경제 분야에 대한 공개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에도 핵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핵능력 고도화와 SLBM, 무수단 등 미사일 전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대남·대미 위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대회 이후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중국 등 친북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합니다. 이수용 당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고 이용호 외무상이 ARF 회의에 참가하는 등 우방국을 대상으로 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고강도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중·러 등 우방국이 동참하여 외교적 입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인권제재에 반발하며 핵 무력 강화 등 기존 주장을 반복하여 핵 타격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표출된 미중 간 갈등구도를 제재국면 전환에 이용하려고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위선적 평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대회 이후 인민무력부 명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 정부에 군사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를 공식 제의하였으나 우리 측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대화 제의 사실을 바로 공개하는 등 대화 성사의 의지가 없는,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를 통한 전 민족적 통일 대회합을 제의한 이후 우리 측 인사들에게 공개편지를 발송하고, 우리 측 단체들에 선별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며 정치적 행사 위주의 교류를 제안하는 등 8·15 계기 등을 이용한 통전 차원의 대남 제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의 일관된 비핵화 입장 견지 등에 대해 비난 수위를 점차 고조시켜 태도 변화를 압박하면서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UFG 훈련에 대해서는 핵전쟁 도발이라고 왜곡하면서 핵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등 우리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변화를 위해 필요할 때는 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조하에 남북대화와 협력의 관행 개선,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통일준비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위협과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남북 간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대처한 결과, 군사적 긴장 완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드레스덴 구상, 3대 통로 등 민족 동질성 회복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여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은 긴급구호 성격의 단순지원에서 지속적인 개발협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여 왔으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통일교육 강화, 탈북민 정착 지원, 통일 문화행사, 통일외교 등 통일 준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맞서 핵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변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독자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어 김정은이 포함된 인권침해 제재 대상자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이 같은 대북제재로 인하여 상당히 압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제시한 통일비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불용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실효적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가되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변화를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평화·번영의 기회, 차별과 불이익이 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 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준비를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통일공감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며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 통합과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우선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과 실질적 통일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하고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교류공세에 대해서는 비핵화 우선 입장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과 우회 임가공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부는 통일준비 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내외의 통일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통일준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를 통한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문화주간을 개최하는 등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다각적인 평화통일 외교 및 공감대 확산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북한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문제입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권법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있고,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 전담조직 설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자문위원 인선을 위해 국회 측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북한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인권 NGO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도 구축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를 시급한 인도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함께 북한측에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였으며 전면적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 등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인프라 구축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 유전자 검사·보관사업 등 국내 인프라 구축작업은 꾸준히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이산가족의 날 제정, 이산가족 기록보존 등 이산가족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탈북민 정착지원입니다.

2016년 7월 말 기준 전체 탈북민 입국 인원은 총 2만 9600여 명으로, 올해 입국 인원은 814명으로 작년에 비해 15.5% 증가하였습니다.

탈북민의 우리 사회 정착 관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며,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부정적 인식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맞춤형 사회 적응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직업훈련을 확대·다양화 해나갈 것입니다.

탈북민의 자립·자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과 창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의 정착자산 형성 지원 및 중장기적 성장·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통일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리더십 프로그램과 멘토링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교류협력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과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방면의 민간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도발로 인해 교류협력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정부의 확고한 북핵 문제 해결의지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민간 교류협력 잠정 중단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주민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시기·규모는 시급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와의 소통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민관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개성공단입니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법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북협력기금과 예비비를 통해 5200억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제도를 토대로 지원하되 보험 미가입 업체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으며,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교역보험 가입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 정상화와 협력업체로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역보험의 틀을 준용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현재 경협보험금은 84.3%, 보험 미가입 업체 피해지원금은 51.4%가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주재원들에 대한 월 임금 6개월분의 위로금도 총 115억 원 중 93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직접피해에 대한 지원 외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5500억 원의 특별대출 패키지 등 금융·행정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근로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0회에 걸친 장차관 기업·근로자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실무 차원에서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선 기업 피해 지원 대책을 조속히 집행해 나가면서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통일교육입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 통일관을 바탕으로 참여와 공감, 문화적 접근을 활용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학사회의 통일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강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육위원 신규 위촉,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지역통일관 전시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래 세대들이 긍정적 통일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학에 대한 통일강좌 지원사업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 대상 사회통일교육이 활

성화될 수 있도록 각 전달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홍용표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훈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인사말씀만 합니까? 제 할 말 해도 됩니까?

인사말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인사말만 하라니까, 어쨌든 저는 외통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개선특위에 온 이유는 남북관계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좀 더 많은 시간 논의를 좀 하고자 왔으니까, 많은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니까 장관께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춘석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장관님, 안녕하세요?

통일·경제 중심 경기도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먼저 장관님, 지난 무더운 날씨에 우리 연천군 방문해 주셔 가지고 통일을 바라는 우리 청소년들 격려해 주시고 말씀 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관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접촉의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질문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섭섭하다고 그럴까요, 우리 통일부에서 너무 자료를 준비하는 데 좀 불성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난주부터 해서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탈북해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의 의견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하나도 없어요.

이게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통위에서 하는 업무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지, 외통위 회의도 아직 안 열렸는데…… 통일부 처음 업무보고 하면 지난주 그렇게 큰 사건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대통령께서 NSC 회의 주재하시면서 '북한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체제 동요, 실제 도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통일부가 지금의 역할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소위 얘기하는 영국 주재 대사관에서 서열 넘버2 되시는 공사가 이렇게 탈북해서 한국에 왔는데 이때 통일부는 어떤 역할을 했고 또 향후 어떻게 되는지 그것 간략하게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신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자료를 충분히,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태영호의 탈북 문제는 이것이 이제 BBC 등 언론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보도가 되고 그 후속적으로 좀 잘못된 보도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추측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우선 태영호 공사가 탈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을 확인해 드린 거고요.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태영호 관련해서 통일부의 역할하고 향후 계획은 별도로 하나 빨리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우리 남북관계가 지금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부처랑 통일부는 또 약간 좀 달라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와 압박 이것은 전 국가적으로 하되, 통일부는 그와는 별도로 또 다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출구전략을 좀 마련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전략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거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정부가 제재와 압박에 집중을 하고 있고, 통일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 제재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대화로 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할 생각이 없고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잘못 대화나 교류를 얘기할 경우에 북한의 그런 어떤 핵개발 명분을 정당화시켜 주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 예, 그런 것은 잘 알고요.

결국은 그러면 통일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게 또 통일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모멘텀 중의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게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70대 이상이 84.4%나 돼요. 또 잘 아시잖아요. 작년 10월에 추석 즈음해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 사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있었지만 또 많은 어르신들이 상봉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봐 왔는데요.

자,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또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가지기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 추진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먼저 이산가족 분들을 생각하면 저도 정말 너무 안타깝고, 이분들 만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북한이 이미 지난 4월 이즈음에 이산가족 행사 안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놓은 상황이고요.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북한은 항상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물론 필요성은 인정하고 당연히 이분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봉이 필요하지만 북한과 이 문제를 협의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당장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다고 치더라도요 우선 생사 확인하고 서신교환만이라도 좀 이루어지고, 제 생각에는 통일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좀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통일경제특구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발의가 돼 왔습니다,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에 대해서요.

또 제가 지난번에 국토부 기재부 또 통일부 다 이렇게 한번 모셔 가지고 계속 간담회를 열었는데, 물론 장관님께서도 이 입법 취지에는 당연히 동의를 하시겠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성원 위원 예, 그렇지요.

남북관계 개선하고 그다음에 통일의 문을 열었고, 우리가 미래 통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 법안을 갖다가 뭉그적거리시면 안 돼요. 장관님께서 밑의 부처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1분만 더 주시지요.

○김성원 위원 장관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일부가 먼저 좀 움직이셔야지 됩니다.

제가 기재부랑 국토부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일정……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의견들 점점 조율하고 있거든요. 이제 통일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셔 주셔야지 이 법안이 됩니다. 뭐 이렇게 법안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장관님께서 통일경제특구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진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미래에 통일 시대를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관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통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특구법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의 필요성이 있고, 또 접경지역에 저도 가 보면 주민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남북관계 상황과 또 다른 관련법 등을, 또 장기적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장관님, 이제 부임하신 지 한 1년 되셨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죄송스럽게 국민들이 통일부장관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통일부장관이 부총리급이었잖아요. 그만큼 국민적 주목도 높았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한반도의 어떤 운명을 다시 한 번 개척해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통일부와 통일부장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상당히 높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가 있는 거냐, 그리고 업무보고를 죽 들었는데 이게 통일부 업무보고인 거냐 여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좀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통일부가 아니라 '분단고착부' 같아요. 국방부 업무보고하고 통일부 업무보고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남북정상회담 계획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없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러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계획을 갖고 북과 접촉해 본 적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없습니다.

○기동민 위원 통일부장관은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통일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에서 하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정상회담이 모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아무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고통스럽지만 그쪽과 대화하고 협력해서 한반도를 지금까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협력, 교류·협력의 한반도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임무이고 그 최선두에 통일부장관이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박근혜정부 출범 3년 6개월인데 남북정상회담 계획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렇다면 통일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통일부가 물론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지만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교류·협력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된 대화와 제대로 된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기동민 위원 제대로 된 대화와 제대로 된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5년이 그냥 지나가요. 5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정말 고장 난 레코드판 튀듯이 임기 초에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겁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통일부장관의 직무유기예요.

정치적 환경들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이렇게 경색 일변도로 나간다 할지라도 참모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잡고, 지금 국방부 혹은 군인 출신들이 전부 다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는 이런 남북관계·외교관계 이런 부분들 속에 통일부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다른 잣대로…… 아까 금방 김성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역할과 위상이 있어서 통일부장관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통일부는 지금까지 소홀했고 직무유기한 거다 이런 국민적 평가에 대해서 저는 어떤 할 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이 할 수 있는 얘기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직무유기한 일은 없습니다.

○기동민 위원 질문 좀 들으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죄송합니다.

○기동민 위원 이거 좀 충분히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한 번 더 여쭈어 봅시다.

NSC 일원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의 반응 등 필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동민 위원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무기의 효용성 문제라든지 외교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압박하고 제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사드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드가 도입된 이후에 한중 공조라든지 대북 공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 속에서 중국과 북한의 무역 교역량은 신문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의 대북 공조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점점 더 대북 공조의 전선에서 이탈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과연 그것이 얻는 실익이 뭡니까? 적어도 저는 통일부장관이라면, 그리고 통일부라면 마땅히 여러 가지 관점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조금 더 완화시켜 내고 긴장을 완화시켜 내기 위한 이런 갖가지 논리와 근거들을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옳았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김관진 실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나 국방부장관이 얘기하는 거나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러면 뭐 하러 외교부가 있고, 뭐 하러 통일부가 존재하겠습니까?

그것은 국론이 통일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한곳으로 모여지고 수많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방침들이 정해졌을 때, 그리고 아주 많은 다양한 걱정과 우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준비되어져 나가면서 정책이 확정돼야 되는 것인데 단 한 번의 그런 과정들 없이 외교부 소외되고, 통일부는 소외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사드 배치에 앞장선 듯한데 그러면 차라리 통일부에 대한 간판을 내리는 게 맞다, 그냥 '분단부' 역할 하셔라, '분단부장관'을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소견을 한번 말씀 줘 보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3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만 해도 수차례 북한에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일언반구도 없었고 결국은 바로 1년 전, 8월 달에 도발 이후에 대화가 있었고 합의에 이르렀고, 그래서 12월까지 대화와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대화가 있었습니다. 12월 달에도 대화가 있었는데 북한은 그때 뒤에서 핵실험을 준비하고 1월 초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을 압박할 때라고 생각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북한이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통일부라고 해서 대화를 추진하고 통일부의 위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대화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한국전쟁이 끝난 오십몇 년, 육십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관님의 시각으로 보면 단 한 번도 한반도는 평화적인 시기가 없었어요. 항상 위기였고 항상 긴장 고조돼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동민 위원 다만 이런 국면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도자의 식견과 철학이 중요한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한 1분만 더 주시면……

○위원장 이춘석 1분 더 주세요.

○기동민 위원 식견과 철학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지도자의 철학과 식견, 가치관에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중심이 되어서, 주도가 되어서 4대 열강 사이에 끼인 이런 틈바구니를 아주 민족 주체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이라 그래서 그만한, 금방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려움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기 한번 돌이켜 보세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집중점들이 서울로 향하고 평양으로 향했습니까? 지금은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고, 대단히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 1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반복되었던 것들을 그대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차분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도 민간 차원의 교류에서부터 정

부 차원의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만이 지금의 위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남북관계가 중심이 되어서 4대 열강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통일부의 역할이고 통일부장관의 역할이다, 거기에 진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론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가 오랜 역사 속에서 관계 개선과 악화를 반복해 왔습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과 같이 우리 남쪽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지금의 북한은 과거의 북한과 너무 다릅니다.

그 점만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제가 30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불바다' 발언도 있었어요. 핵실험은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번의 핵실험 예정이 있었고 핵실험 또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이런 남북 간의 관계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실거리고 파도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은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유지해 왔던 하나의 강박한 수단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요.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요. 특히 통일부장관님은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위원장 이춘석 기동민 위원님, 보충질의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국민의당 남원·순창·임실의 이용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7월 초에 사드 배치 관련해서 NSC가 열렸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 당시에 통일부장관께서 한 발언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위주로……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했고요.

NSC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구체적인 발언은 아니더라도 통일부 차원에서, 통일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어떤 영향을 앞으로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통일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필요한 역할과 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사드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사드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용호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NSC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그 회의를 하는 이유는 각 부처가, 이제 국방부는 또 다른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외교부는 또 다른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부처마다 입장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된 장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사드가 통일정책에 도움이 결국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하는 게 옳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통일부에서는 '최근 탈북 관련 동향' 발표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휴일 날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매우 이례적인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휴일 날 발표하는 게 그렇게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일요일 오후에는 기자들이 나와서 취재를 하고 저희도 수차례 필요한 브리핑들을 일요일 오후부터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호 위원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부처가,

누구든지 뉴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일요일 날 발표하는 것은 뉴스가 조금 크게, 뉴스가 없는 시점을 이용해서 좀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전략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고.

○통일부장관 홍용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용호 위원 지금 국내 문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그 이외에 사드 배치 문제 그 외 많은…… 또 국회에서는 추경을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난마처럼 얽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은 출구가 안 보이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은 북한 문제를 사실은 왕왕, 현 정부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그동안에 사실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계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발표한 것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국내 정치용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 어저께도 전혀 그런 고려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언론 쪽에서 그런 것들에 이렇게 넘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이 더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런 것 고려는 전혀 없이 필요한 내용을 기자들한테 브리핑했을 뿐입니다.

○이용호 위원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서 꼭 어제 발표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어제 시작한다는 것, 22일이 오늘이지요? 오늘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발표한 것인가요? 그 외에 굳이 어제 발표할 이유가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다만 지금 발표한 내용은 이것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내부체제 결속과 대남 국면전환을 위해서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것이거든요. 이것 매우 주관적인 표현인데,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언론에 실제로 나온 부분들은 물론 기자들의 관심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제가 어저께 브리핑한 이유와 또 그 브리핑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토요일 날 북쪽에서 태영호 관련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부가 입장 발표를 못 해서……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북한이 탈북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 왔던 그런 얘기를 하고, 그와 함께 최근에 그래서 탈북 유형이 바뀐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또 태영호 탈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UFG 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위협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예요. 태영호 망명 그다음에 탈북 유형 그다음에 UFG 시작하는 것 이 세 가지인데요. UFG 이걸 빼놓고는 태영호 관련해서는 사실은 북한도 지금 대내용으로 태영호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대내용은 아니고요. 대외로 나가는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영호는 북한 내부에서 전혀 모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직은 모르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용호 위원 그리고 탈북 유형 부분도 새로운 내용이라고 한 것이지만 어제 시점하고는 맞지 않다, 굳이 어제 할 만한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그 발표한 내용 보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김정은의 보복조치 실행 지시 이렇게 보복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북한이 최근에 탈북과 관련해서 보복을 지시했다는 정보들이 입수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고영철이라는 탈북자 사례와 같이 국경지역에서 지금 북한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또 실제로

어제 조평통이나 총참모부에서 위협발언까지 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용호 위원 어차피 위협 발언 이것은 태영호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지금 통일부가 발표하는 것은 국정원이나 이런 데와 정보를 공유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더 직접적으로 여쭈면 통일부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하냐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아서 그냥 발표하는 정도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통일부가 독자적으로 파악하는 정보들도 있고 또 국정원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유관부처들을 통해서 받는 정보들도 있고요. 정보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어제 발표한 것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당연히 유관기관이랑 협의를 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금요일 날쯤 이렇게 협의를 한 건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마 그것 관련된 정보는 계속해서 협조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있고요. 어저께 그 탈북 유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죽 파악해 왔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자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호 위원 지금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에 시점을 맞춘 것 같고요. 하여튼 제 질문은 끝났으니까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북핵문제로 남북한이 꽁꽁 얼어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에 임하는 본 위원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맞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의한 건지, 또 누수현상으로 비춰지는 탈북자의 집단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지난 4월 달에 어떤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총선을 불과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아주 신속하게 언론에 그 사실을 공개했고 그 이후에 아주 비정상적인 철통보안의 모순을 보이면서, 특히나 국정원은 정착교육을 시키는 그런 관례를 깨고 더 나아가서 하나원에도 보내지 않은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통일연구원 조사에 흔치않게 거부를 했고 비공개 법정 출석도 거부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차례 현장조사도 요청을 거부했고 또 더 이어서 8월에는 바로 사회 배출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집단 탈북자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로 인해서 탈북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 탈북이 아니었느냐' 그런 아주 짙은 의혹을 내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국정원에서 관계자조차도 '들어올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이제는 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입국하는 순간 앞으로 어떻게 남한에서 이들이 안전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중하지 않은 발언들이 상당히 불필요한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이 이번 북한식당 집단 탈북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한 민변이나 또는 유엔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등의 요청에 불응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께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6월 달에 말씀하신 발언이 누가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자유의사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입국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요청이 있었지만 어떤 면담이나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본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이 잘못 인터뷰에 응했을 경우에 가족들의 신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본인들이 어떤 외부에 노출이 되거나 인터뷰하는 것

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끌어다가 만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침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김순례 위원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인권을 존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서의 변명같이 들리는 그런 이야기가 현재 우리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민변이나 또는 여타 일부 세력에 의해서 이게 마치 공안기관에 의한 강제 납치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여론의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통일부의 대안이 마뜩찮다는 여론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저희도 일부 단체들이 그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희가 사회로 배출했더니 북측에서는 '어디다가 숨겨놨다. 가둬놨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이 사람들의 신변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해서 저희도 어떤 외부인사와의 그런 접견이나 면담을 지금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례 위원 '자발적이지 않다'라고 북한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탈북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 내지는 어떤 개인들의, 사람들에 의한 선동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치 정부가 기획하고 거기에 어떤 아주 굉장한 음모가 들어 있는 듯하게 이렇게 대변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통일부에서 직접적인 진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본인들이 극도로 외부인사 만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인 인권보호관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부, 아주 일부에서 자꾸 이것을 왜곡하고, 마치 무슨 저희들이 진짜 북한에서 얘기하는 대로 납치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미 사회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런 얘기들을 하겠지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김순례 위원 아무튼 사소한 논란이라고 판단한 일들이 국가의 안보를 심대하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통일부에서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나 이런 집단 탈북이나 여기에 관련해서, 아니면 또 사전예방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의 동향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김순례 위원 그렇지요. 북한에서 '남한에 대해서 집단 테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언론에 살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측에서 계속해서 탈북자들에 대해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동향은 저희들이 계속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과 협의하에 필요한 대비책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하여튼 장관님이 답변하시는 걸 지금 들으면 '잘하고 계시다' 이런 말로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북과 남이 대치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과 국방부 또 외교·안보라인 전체가 더 협력해서 대처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 김두관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신 통일대박이 되면 남북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큰 그림을 좀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통일대박은 통일이 되면 그 통일은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은 물론 주변 국가들한테도 큰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이라는 점, 그래서 통일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 국민들에게 또 특히 젊은 층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김두관 위원 하신 건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두관 위원 통일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남북 교류협력이 강화돼야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통일대박은 특히 개성공단과 비유해서 좀 말씀드리면, 남쪽의 우리 돈,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과 토지가 결합해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생산품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져서 그게 어쨌든 단초가 돼서 남북 경제 교류협력을 통해서 통일 시대까지 나아가고 또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산 제품들이 유럽시장을 공략하고 또 동북 3성과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연해주 또 하바롭스크주 또 카자흐스탄 이런 알타이 연방과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바라는 '5만 불 시대', '세계 7대 경제 강국'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통일대박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남북 긴장고조 상황에서 군사적인,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통일부에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기동민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정말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대체로 제가 만나본 국민들의 판단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전반적인 흐름—자본과 기술 또 북한의 토지가 결합돼야 되고 유라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발전하고 경제협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통일대박으로 가고—그 방향은 지금 김두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드레스덴 선언 같은 데서도 바로 자본과 토지 또 노동력과 기술 결합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다만 북한의 핵 개발 그걸로 인한 제재, 그 당시에도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민생 인프라'라는 얘기를 써서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인프라 협력을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4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적인 제재가 들어가 있고 그 제재 상황에서는 경제협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중요하고 비핵화를 위한 제재 압박에 저희가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두관 위원 그 정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혹시 남북이산가족 계획이 있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이산가족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산가족 문제는 진짜 순수하게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이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두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NSC에서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께서 멤버로 계시고…… 그 다음날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국회 예결위, 본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께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이용호 위원님 질문에 즉답을 피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통일부는 외교부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NSC에서 기본적인 필요한 역할을 했고요. 사드라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대한 적은 없고요.

제가 외통위에서 같이 옆에서 들었는데 외교부장관께서도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고 그것은 잘못된 기사였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김두관 위원 물론 국회에 나와서 정부의 고위 결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 충분히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외교·통일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각료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히 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과 미국 관계는 산소 같은 관계라면 이제 한중 관계는 밥과 같은 관계다, 둘 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께서는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두관 위원 중국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또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핵·미사일 문제는 동북아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이고,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고 비핵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을 해 왔습니다.

○김두관 위원 어쨌든 최근에 중국이 유엔 결의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태도가 확실하게 달라졌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확실하게 달라졌다기보다는 일부 지금 어떠한 유엔에서의 논의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중국도 이 제재에 대한 이행 의지는 계속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어쨌든 그 결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북한 경제제재에 중국이 동참했지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북·중 무역이 훨씬 더 늘어난 것은 인정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매달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제재가 이루어진 이후에, 4월 이후에는 무역이 줄어들고 있었고 6월에 조금 늘어난 걸로 있었는데 지금 그 한 달 치만 가지고 전반적인 추세를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두관 위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 위원 국민의당 최경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최경환(국) 위원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지금도 유효한 정책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유효한 정책입니다.

○최경환(국) 위원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다른 수단들이 보이지 않는데,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도 저렇게 되고 또 사드로 해서 남북관계가 최고로 악화되고 있는데, 남은 1년 반 동안 그런 기조의 어떤 다른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남북관계는 1년 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바로잡고 또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신뢰 프로세스의 입장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다만 지금 북한의 위협이 워낙 거세고 차원이 다르고 전혀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할 입장이 없기 때문에 압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좋아요. 압박을 쓰지요. 공부도……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신 우리 장관님이시고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해 오셨고 그러는데 한반도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압박과 제재를 해서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 북한이 압박과 제재의 영향을 받아서 대화에 응하거나 한 사례들을 한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남북관계의 역사를 보면 압박을 했던 경우도 있고 또 보다 좀 온건한 정책을 폈던 경우도 있고요.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따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최경환(국) 위원 제 기억에는 압박해서, 제재해서 북한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한번 대화해 보자' 이렇게 나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말씀하셨던 대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대화를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성과들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정책이 압박과 제재, 선 비핵화를 위한 압박과 제재 저는 그것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많은 학자들이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는커녕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압박과 제재를 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 동안 무려 세 차례의 북한 핵실험이 있었고, 여기 현황보고에서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미사일 발사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조·정책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참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북한에 제안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최경환(국) 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압박을 하는 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산가족 문제는 결국 북한이 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화,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화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지만……

○최경환(국) 위원 아니,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 문제이고, 안타까운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이런 입장에서 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전에요 아까 압박과 제재로 인해서 핵 능력이 커졌다는 것을 인정 안 하신다고 했는데 북한 핵실험, 지난 8년 동안 세 차례 한 것 맞지 않습니까? 압박정책, 봉쇄정책, 제재정책 해서 핵실험이 세 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핵 능력이 커졌다는 것?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네 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3년 동안 압박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점은 꼭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입니다. 북한의 이런 과거와는 전혀 다른 김정은 시기의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정책만을 놓고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핵개발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영호 공사 탈북 문제로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독일 정부나 영국 정부, 미국 정부가 탈북 과정에서 협조를 한 게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국) 위원 아니, 언론에 다 났는데요? 영국의 MI6 첩보기관이 참여했다는 얘기도 있고……

○통일부장관 홍용표 언론에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최경환(국) 위원 미국 공군기지를 들러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통일부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언론에서의 추측 정보들입니다.

○최경환(국) 위원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최경환(국) 위원 그러면 통일부는 정보 취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던데,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부 정책을 정하실 때?

○통일부장관 홍용표 감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로와 또 협력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제 이야기는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 그런 제삼국들이, 탈북에 정부기관들이 개입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또 국제정세에서 큰 외교적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에서 우리 통일부가 전혀 파악도 안 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씀인데……

○통일부장관 홍용표 언론에서 추측으로 쓴 기사입니다. 다만 정부가 그것을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경환(국) 위원 지금 태영호 공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관계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언론 공개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필요한 시기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개를 할 것입니다.

○최경환(국) 위원 이분이 탈북입니까, 귀순입니까, 망명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북한에서 나왔다는 의미에서 탈북이고요. 귀순은 과거에 썼던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탈북?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최경환(국) 위원 그분도 통상적으로 하나원 통해서 탈북자로 정착을 하게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하나원에 들어가는 문제는, 그러니까 통일부장관이 보호결정을 하느냐, 국정원장이 보호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

고요.

○최경환(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상지원에 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약 7800억 원에 달하는 우리 기업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경협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경협보험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유상 지원 부분은 예비비나 이런 것들과 같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한 사람한테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한 사정은 인정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도 일정 부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 기업 중에 가입 안 한 기업이 몇 개사나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오십몇 개사인가 사십몇 개사로 지금 알고 있고요.

○김종석 위원 그러면 125개 기업 중에 한 3분의 1이 보험에 가입을 안 했네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위험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정부 측에서 이 46개사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 보험 가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권유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그냥 방치해 둔 상태였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46개사가 미가입한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판단했던 대로 그냥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요. 또 일부 기업들은 2013년에 잠시 중단이 되었을 때 보험금을 탔다가 반납하지 못하거나 해서 가입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부채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고, 그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

○김종석 위원 2013년에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때 그때에도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셨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때는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았고요.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미가입 기업에게도 보상을 해 준 선례가 생겼네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이번은 좀 특별한 경우여서……

○김종석 위원 그리고 교역보험이라는 것도 제공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아무 기업도 교역보험은 가입을 안 했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래서 또 공단 가동 중단에 의해서 적지 않은 기업들이 피해를 봤는데 지금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나중에 또 이런 대북 경협관계를 할 때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보험을 가입 안 할 요인이 상당히 강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도적 실패에 대한 보완으로 앞으로 대북관계 사업에서는 좀 의무가입을, 자동차의무(책임)보험처럼 의무가입을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사실은 정부가 안보 차원에서 전면 중단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지원 요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미가입 기업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기업들은 그것 이상의, 100% 지원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형평성 문제들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무가입 같은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세금으로 미가입 기업들한테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 배경에는 사실은 국내 협력업체들이 적잖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상황인지, 이 협력업체들은 특별한 요구사항이 통일부에 대해서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업 지원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직접 경영

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는 협력업체들로부터도 그런 피해 상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지원을 했고요.

다만 협력업체들이 지금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업체들과의 문제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부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위원 지금 이 보험금뿐 아니라 특별한 유동자산 지원금을 주고 국민 세금도 일정 부분 들어갔는데 입주기업들과 관련하던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제대로 기대한 수준의 지원이나 효과가 전달되는지 아마 통일부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협력업체들이 단체행동 하고 있는 것 장관님도 아실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한중관계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북·중 교역이 다시 활발해지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강도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엔 논의 과정에서는 좀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어떤 제재에서 이탈한다든지 하는 징후는 아직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유엔 결의안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대북제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규정대로 대북제재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가 19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현재 43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늘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종석 위원 그래도 여전히 절대다수의 국가가 제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복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도 제재 이행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만큼 더 이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외교부 등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이행보고서 제출도 촉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부분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장관님, 답답하지요? 북한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시지요?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제가 통일부 우리 홍 장관님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벽 보고 통일부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동의하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뭐, 그런……

○백재현 위원 거의 비슷해요. 장관님께서 북한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느낌이나 저희들이 통일부를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나 벽 보고 하는 느낌이 거의 비슷합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우리 홍 장관님 입장을 이해는 해요, 충분하게. 그렇지만 통일부는 좀 다르잖아요? 통일부가 있는 이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방부나 외교부나 다른 부처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 인적교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상황, 금년도 상황.

금년에 인적교류 상황이 남북 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혀 없나요? 금년 한 해 누계 숫자로 하면 얼마나 돼요, 7월 말 현재?

○통일부장관 홍용표 1월 초까지는 좀 있었고요. 하지만 북한의 2월 미사일 실험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거의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백재현 위원 거의 없는, 제로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전체적으로 금년에 한 100명쯤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2월 이후에는 저희가 방북을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백재현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백재현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현재 한 800여 명 들어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국내에 들어오신 분이,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800여 명 된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백재현 위원 그러면 누계 숫자로 전부는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2만 9600명 정도……

○백재현 위원 한 3만 명 가까이가 된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백재현 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그래도 우리 국가 제도에 맞추어서 제대로 하고 있나요, 탈북민 지원 대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정착 지원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분들의 가장 불만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마다 또 조금씩 다르고요. 저도 많이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착 지원에 대한 불만도 있고……

○백재현 위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탈북민을 우리 장관님께서 직접 만나 본 것이 몇 번이나 되세요, 금년에?

○통일부장관 홍용표 수도 없이, 금년만 해도, 지난달만 해도 서너 번은 만난 것 같습니다.

○백재현 위원 남북협력기금이 누계로 쌓여 있는 숫자가 지금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통일부장관 홍용표 협력기금은 매년 한 1조 안팎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한 1조 2500억 세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백재현 위원 그런데 누계 숫자는 지금 얼마나 있어요? 한 10조 이상 되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매년 그 정도 새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백재현 위원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써야지요, 어떻게든 통일을 위해서. 금년도 1조 2550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금년 집행한 것이 4070억, 32% 지금 집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인도적 문제 해결—이 자료, 보고해 준 내용을 보면 이래요—6558억 중에 9억 지출했어요,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인도적 문제가 그렇게 없나요, 해결해야 될 것이? 금년도 계획이 6558억 1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7월 31일까지 집행한 게 9억 300만 원 집행했어요, 0.1%.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이번에 추경 세운 것에서 빼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세워 놓고 안 쓰려면 예산 왜 세워요?

뭘로 쓸 거예요, 앞으로 4개월 동안에?

장관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인도적 지원 사업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계속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올 상반기에는 북한의 핵실험……

○백재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돈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금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것 뽑아서 다른 데 써야지. 6558억을 그냥 놔둬요, 9억 썼는데? 그러면 한 10억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뽑아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어차피 추경을 한다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금이라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필요할 때를 대비를 해서 그 기금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도적 지원도 앞으로 또……

○백재현 위원 개성공단 지원 사업에 확실히 넣어 가지고 그러면 피해 개성공단에다 지원하는 추경안에 넣든가……

이번 추경 할 때 그렇게라도 돌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협력기금을 개성공단 지원 1411억 있는데 여기에다 한 5000억 더 돌려서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절차를 거치든가, 어차피 추경 들어왔으니까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지 숫자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돈만 놔두고 피해 기업들 지원도 않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개성공단 피해 지원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사업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아니, 개성공단 지원 사업도 그래요. 1411억 세워 줬는데 이게 모자랄 것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모자라면 인도적 문제 해결에 있는 그 돈 갖다 돌려서라도 지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개성공단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아니, 금년에 진행해야 할 내용을 금년 상반기 내내 9억 지출했잖아요? 하반기 지출 계획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추경으로,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 넣어야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금이 전반적으로 다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집행률은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양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0.1%가 뭐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 간의 합의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했던 일들이 지난 2005년 8월 1일 발효된 13개 그 이후에는 10년이 넘도록 한 가지도 남북 간에 합의 본 게 없네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남북 간의 합의는 작년에도 있었고요 재작년에도 있었고요.

○백재현 위원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합의 내용이 있었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친 합의는 없었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게 05년 8월 1일이 끝이에요. 그러면 벌써 12년, 11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남북 간에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적어도 국회의 동의를 받을 정도의 합의서 하나를, 국회가 동의할 만한 합의한 것이 한 건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통일부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렇다고 통일부의 역할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재현 위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남북 간에 뭔가 대화를 나누고 뭔가 했더라면……

○통일부장관 홍용표 북한하고 대화만이 통일부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재현 위원 참 답답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국회 회담을 진행한다면,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통일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회 회담 부분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다만 정부와 협조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백재현 위원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 통일부는 동의하실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독자적으로……

○백재현 위원 입법부가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통일부는 적극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를 유도하고 지원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대로 된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담을 위해서 방북 신청하면 동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회 의견을 존중하지만 또 남북 관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민간이 진행하는 옛날 겨레말큰사전 사업이라든가 개성유적지 발굴 사업이나 이런 것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다 끝났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재현 위원 계속 이것까지도 중단시키고 있을 건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북

한의 이런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재개할 수는 없고요. 작년에 정말 그 사업을 잘 만들기 위해서 무지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단체들과 정말 오랜 기간 협의를 하면서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의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의 그런 셈법과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여건이 종료되면 다시 시작을 할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통일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세워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점은 뭐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설훈 위원 너무 많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설훈 위원 경제적인 조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사회 구성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남북이 서로 대결해서, 만일 대결한다면, 전쟁을 한다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전쟁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습니까?

공멸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그것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과 북이 하고 있는, 적어도 남과 북의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곧 전쟁할 듯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닌가 생각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훈 위원 우리는 대한민국이에요. 북한과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조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통일부장관과 청와대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정상적인 사회는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좌우가 있습니다. 한 5% 내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쪽도 5% 오른쪽도 5%. 그 거기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진보·보수로 나뉘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대한민국은 정부 정책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극도로 우쪽에 있는 5%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정상적인 사회가 안 됩니다. 물론 전쟁을 거치고 남북이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런 국가가 적어도 지도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정상적인 대처를 못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못 하고 정상적인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이미 남북관계는 상황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남쪽이 북쪽을 이끌어 가야 할 시점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과연 정직하게 하고 있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북관계에서는 지극히 거짓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중국에 있던 북한식당 종업원들 13명 넘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아, 저게 몇몇 사람은 틀림없이 남쪽으로 오려고 그랬고 몇몇 사람들은 멋모르고 왔다가 '나 북한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사정을 한번 보시오' 그래서 사정을 보니까 '상당수가 안 가려고 그랬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은 끝까지 가겠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진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이미……

○설훈 위원 잠깐만……

진실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앞서 전쟁 말씀하셨

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전쟁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은 지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 종업원에 대해서……

○설훈 위원 그러면 50% 지지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입장이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 그러니까 아까 5%를 말씀하셔서…… 저는 일단 전쟁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자는 것은 북한입니다.

○설훈 위원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한 5%의 생각으로 나머지 부분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설훈 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뭐냐, 주변 4대강국이 어떻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남북은 같이 가야 할 상황이에요. 그것을 책임지는 장관이에요. 그러면……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저런 북한하고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설훈 위원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남북이 같이 가야 할 상황이에요. 통일부장관의 지향점은 분명해요.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통일부장관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라는 것을 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뭐 때문에 통일부를 두겠어요? 전 세계에서 통일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통일부를 두고 통일부장관이 있는 거겠어요? 적어도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서가 왜 존재해요? 그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는 정권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통일부로서 고유한 권능이 있고 그것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뭐라 하더라도 통일부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통일 정책이 엉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장관의 직무유기예요, 내가 볼 때는. 장관으로서, 통일부장관을 맡았다면, 외교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의 위치가 아니에요. 통일부장관이라면 통일부장관으로 해야 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알지요, 대통령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원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말씀 틀렸습니다, 이게 옳은 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남북 정책은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험악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량으로 보건대…… 이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면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와, 대한민국이 우리보다 월등히 낫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또는 중국 식당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사실들이 있었다면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어요. 그리고 '가겠다는 사람 가라'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모자라요? 북쪽하고 똑같이 놀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에요. 그 점에서 자신을 가지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자신을 가지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설훈 위원 가만 계세요.

정부도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대로 이끌어가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이 할 일이에요. 그래야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우위에 서고 북한이 우리를 따라온다고요.

장관이 1년 6개월 했으니까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라도 정확하게, 그동안에 생각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청와대에 말씀하세요. 장관 천년만년 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길이 있으면 잘못된 길이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것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왜 그것을 못 하세요? 모르고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분은 아니라고 알아요. 알고 계실 거예요. 정확히

어떤 게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 나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부족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얘기하세요. 오늘 금방…… 건방져도 괜찮아요. 금방 그만둘 때, 당당하게 통일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역사에 기록됩니다. 지금 한 얘기들은 상당수 거짓말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가들이 다 보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역사를 의식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장관 그만두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춘석 예,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미국이나 중국 눈치 보느라고 북한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민족과 통일을 생각합니다. 민족과 통일을 생각할 때 지금 저런 북한을 그대로 두고 우리의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말씀 안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종업원, 원래 북한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나머지는 자유의사에 의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정부의 말을 믿어 주시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아니고 눈치 보는 것 아닙니다. 저도 통일을 생각합니다. 민족을 생각합니다. 국민을 생각합니다. 마치 강대국 눈치나 보고 이런 식으로 폄하는 안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설훈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명 위원 이종명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최근 태영호 관련해서 최고위급을 정말 안전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입국을 성공시키게 하신 일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박수를 보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드렸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탈북민 관련해서, 2만 9608명이라는 약 3만 명 가까운 탈북민, 이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민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들의 삶의 질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들이 탈북 이후에 남한에 들어와서 상당히 적응이,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지만 순조롭지 못하다 하는 이런 면도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7월 28일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 평가 자료에도 보면 탈북민들이 우리 국민들과 비교를 해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일반 국민보다 한 3.4% 정도 떨어지고 고용률도 약 6.1% 정도 떨어지고 월평균 소득도 평균이 한 57만 원 정도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되고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됐다고 장관님은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저도 그 보고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고서에 있듯이 전반적으로 정착 지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체제가 다른 데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여전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원래부터 남쪽에 있던 국민에 비해서는 취업이라든지 교육 지수 부분에 대해서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도 통일부에서 탈북자 정착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또 한 번 전반적으로 정책을 리뷰하고 보완할 부분들이 없는지, 저도 지금 다시 그래서 여러 탈북민들과 또 전문가들을 만나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정부에서……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탈북민들의 적응의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다 왔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탈북민들을 분석을 해 보면 최근 들어 가지고 여성들이 더 증가됐다, 또 연령대별로 굉장히 젊어졌다 하는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장관님께서 보고를 하셔서 탈북민 지원을 수준별, 특성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연령별이나 성별, 학력별, 생활경력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맞춤형 지원방안이 좀 더 구체화 또 세분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맞춤형 지원을 내걸었고, 3만 명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도 맞춤형 지원이 안 되면 정말 이것은 노력이 부족한 거라는 생각으로 계속 저희도 개개별 사연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계속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탈북민 3만 명, 좀 전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적은 인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3만 명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이 탈북민들이 나중에 차후에 통일 이후에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통일이 순차적으로 천천히 되면 그렇지만 급변 사태하의 통일 이렇게 됐을 때 북한지역을 관리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런 탈북민들을 잘 활용하면, 활용이라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북한지역 자체의 어떤, 거기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탈북자만큼 유용한 인력이 없을 것이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을 정착 차원에서, 생존권 차원에서만 지원할 게 아니라 통일 지향하는, 앞으로의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이 통일을 준비하고 또 통일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맞춤형 지원과 함께 사실 통일부에서도 지금 강조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회통합형이고 어떻게 통일에 기여할 수 있게 할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되든 실제로 남북 간 주민들이 통합을 해야 제대로 된 통일을 할 수 있고 그 통합 과정에서 지금 탈북민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소통이나 통합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또 이 사회에서 탈북민에 대한 편견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금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탈북민들은 배가 고파서, 정말 힘이 들어서 탈북한 난민형 탈북자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번에 태영호 공사 관련한 것들로 봐서 자녀 교육이라든가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이주형 탈북형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탈북자들 보면 고위직이라든가 전문직 이런 인원들이 많은데 이런 인원들이 탈북을 할수록 북한 정권 차원에서는 충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안전 문제를 좀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1분만……

○위원장 이춘석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최근 사드 문제 관련해서 한반도 주변 정세라든가 또 오늘부터 시작된 UFG 관련해서, 한미 연합훈련 이런 것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공공연하게 얘기도 하지만 테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고위급 탈북자들, 전문직 탈북자들이 많지 않겠는가, 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과 또 통일부 자체 혼자서만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고 또 공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탈북민들의 탈북 유형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북한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들에 대한 신변안전은 각별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경찰이라든지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보완할 점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장관님, 업무보고에서 몇 개 좀 먼저 확인하고 여쭤 보겠습니다.

20페이지 개성공단이거든요.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대략 한 124개 기업이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우리 쪽에서 근로자로 가신 분들이 기록에 의하면 803명이고 그리고 북쪽에서 근로를 제공한 인원이 5만 4763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이 124개 기업 중에 지금 공단 폐쇄로 인해서 부도가 났거나 파산 신청을 한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현재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 번 확인……

○윤후덕 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

○통일부장관 홍용표 파산 신청한 기업은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사실상 도산이나 부도와 동일한 상태에서 정부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다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의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직접 좀 더 살펴보세요. 현장으로 공장도 자주 찾아가신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더 좀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803명의 우리 쪽 근로자들이, 이를테면 일자리를 못 가진 사람들이 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6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해서요.

○윤후덕 위원 결국은 이 회사가 다시 돌아가야, 가동이 돼야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많은 분들이 기업에서도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곳에 취업한 분들도, 저희가 도와준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6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개성공단을 먼저 물어본 것은, 제 고향 파주에서 개성공단까지 대리운전 1만 원이면 갑니다. 그런데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전 정부 때 개성공단 두 번 가 보고 개성에 가서 관광도 하고 만두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 꽉 막혀서 참 답답합니다.

5만 5000명가량의 북한의 근로자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요?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2013년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 주변의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그런 정보도 들어옵니다마는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개성 시내쯤에서 다 빠져나갔지 않았나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이것 하나만 좀 확인해 주세요. 북이 지금 개성공단에 기자재나 원부자재를 재가동시키거나 또는 반출하거나 그런 조짐이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개성공단이 중단된 초기에는 일부 차량 움직임도 있고 해서 원부자재 등이 혹시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했고 또 일부 개성공단의 원부자재가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다라는 정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정확하게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야 없겠지요. 그런데 계속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 재산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 재산이고?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반출되거나 또는 북한 상황에서도 도둑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거기서 도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한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다라는 그런 외신인가 어디에서도 보도를 봤어요.

하여튼 이 부분이 초기단계에 우려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 장관님 답변에?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윤후덕 위원 그 전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교류협력 향후 계획에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일 때까지 민간 교류협력 잠정 중단 조치 지속' 그리고 '위법 시 단호하게 의법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동그라미이지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해 나

간다는 입장', 그런데 설명을 보면 무척 신중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언제쯤 보일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을 지금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윤후덕 위원 요원하지요? 현재로선 깜깜하지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지금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제재로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제재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달성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재를, 압박을 계속해서 붕괴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재의 목표는 붕괴가 아닙니다. 제재나 대화나 다 평화로 가기 위한 수단이고요. 우선은 지금 제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후덕 위원 답은 안 보이는 거네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렇지만 우리가 꼭 이루어 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되거나 또는 제재에 굴복해서 핵을 포기하거나 두 가지의 가능성 그것을 정부가 바라면서 제재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은 계속 핵무장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으려고 별 수단, 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래서 공인받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드 관련해 가지고 결정된 데에서 몇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통일부가 이 과정에서 물먹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외교부도 물먹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국방부가 물먹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청와대 안보실에서 진행한 것이라는 것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못했다 그렇게 질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양국 정부가 결정한 이후에 북한이 노골적으로 중국에다 대고 북한의 핵 보유를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인정해 달라라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실제 핵 보유를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외교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중국의 태도는 뭔지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주 단적인 예가 이수용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 등 지도층이랑 면담을 했을 때 병진노선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북측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중국 측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것을 또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북한은 당연히 병진노선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후덕 위원 30초만……

○위원장 이춘석 보충질의 안 하실 거예요?

○윤후덕 위원 30초만, 이것 마무리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춘석 예.

○윤후덕 위원 사드 배치를 한미 정부 간에 결정한 이후 중국의 태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무척 높아요. 그중에 가장 우려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사드 배치로 인한 미·중 간의 갈등이나 한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덜컥 그것을 받아들여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라도 북한이 핵 보유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경우 그 경우를 저는 제일 우려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동북아 정세나 그것이 갖는 국제사회에서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도 지금 소위 P5 국가이고 미국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책임 있는 국가로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일은 저는 결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사드 결정 이후에도 ARF라든지 몇 개의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비난하는 성명에 중국도 다 동의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

오.

○정양석 위원 서울 강북갑 출신 정양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어려운 시기에 통일부장관 맡아서 오늘 마음고생 많이 하시네요.

장관님께서는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인수위원회에서 활동도 하셨고 또 통일비서관도 지내시다가 장관을 맡았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을 기획하고 또 집행해 오신 셈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관님,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을 기초한 당사자로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남북 경색 상황을 한 번이라도 예상해 본 적이 있나요? 또 이 시점에 통일부장관으로서 국회에 와서 '벽을 보는 것 같다. 정말 답답하다.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분단고착 장관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위원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한 번이라도 박근혜정부 출범할 때 우리 남북 상황이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상해 보셨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남북관계가 항상 이런 관계 개선과 경색을 반복을 해 왔고, 사실은 그런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신뢰 프로세스의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을 했고요. 출범할 때부터 사실 핵실험과 함께 출범을 했었고요.

○정양석 위원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중에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제3차 핵실험이 있었지요.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 정책을 해 왔는데 3년 반이 지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대화 노력은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원칙에 대해서 충실했지만 너무 경직돼 있다, 정책 집행에. 그래서 정책의 운영에 여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 평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 반 남았지요. 임기는 1년 반 남았지만 내년 이때쯤 되면 이미 다음 정권을,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새로운 통일정책을 내놓기 시작하고 현재와 같은 경색 국면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는 순간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없어집니다.

장관님께서 정말 답답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이유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 역사는 과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시간 없습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북한이, 우리가 내걸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 그 대답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왜 우리 통일정책을 북한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남북한 문제를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위원님께서 충고와 제언을 해 주신 부분은,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간적 제한 때문에 정책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화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대화에 나설 경우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의 저런 잘못된 행동을 인정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만 조금 셈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양석 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우리 장관님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그 속셈을 북한은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현 정부와 할 일은 없다. 다음 대권주자들과 새로운 딜을 하겠다'고 나선다고 한다면 장관님은 앞으로 남은 임기 내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토론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북한의 도발이나 비협력 이런 부분들이 정책구상 시부터 다 예상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리 원칙만 고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와 또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전직 통일부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충고와 쓴소리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세현 전 장관님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양대에 걸쳐서 통일부장관을 지내셨고 개성공단을 착공하고 준공한 당사자입니다. 요즘 개성공단의 폐쇄 상황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또 여덟 번의 장관급회담에도 참석하셨고 남북대화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남북의 평화적인 대화 분위기를 주도했던 그

런 통일부장관이셨습니다.

다양한 충고와 쓴소리, 국내외 여러 가지 강연, 또 야당 의원들과의 토론회에서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것은 우리 장관님께서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충고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서 사드를 결정한 것은 박근혜정부 외교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때요? 우리 장관님도 나중에 은퇴하시면 또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전직 장관님들을 좀 모셔서 통일부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좀 솔직히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전직 장관님들과 대화는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한편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전직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양석 위원 1분만,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정세현 장관님의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썩 잘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통일정책을 주도하셨던 그 장관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가 남북대화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내부의 그런 대화들,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데에도 노력을 해서 이런 모습들이 외국 언론에 비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사드 배치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안보적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특위 회의를 보면서 통일부가 굉장히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쯤이면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국가의 장기적인 안목의 생존전략을 입안하고 또 활발한 접촉이 있어야 될 통일부가 연구용역이나 겨우 발주하고 세미나 같은 이런 행사가 주가 되어 버린, 이것은 통일부가 아니라 통일연구소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아데나워 총리가 초석을 닦고 또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을 외친 빌리 브란트와 그 외교안보참모 에곤 바르, 또 이것을 다름 아닌 보수당인 기민당이 계승을 해 가지고 결국은 헬무트 콜 수상의 통일외교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이고 일관된 통일정책이 독일 통일의 위업을 성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통일부장관 홍용표 동·서독과 남북관계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이 동·서독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인 일관성에서 그 정책의 결실이 맺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도 약간 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 독일에는 소련의 2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고 또 심지어 통일 후에 밝혀진 일입니다마는 동독과 바르샤바 동맹국은 서독에 대한, 서방세계에 대한 핵 사용 선제 전략까지 갖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지금 북한에 비해서 그 위험도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남북한과 동·서독 관계의 가장 근본적 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전쟁의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독일은 당시에 패전국으로서 주권도 없었고 심지어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독에 접근할 때 키신저 국무장관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값싼 민족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비난도 무릅쓰고 동맹정책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이러한 통일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독일 통일의 초석을 닦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불리하다면 동·서독이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범국가가 아니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쎄요, 그것을 직접 비교

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독일 나름대로 여러 논쟁을 거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저희도 그동안 여러 가지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박근혜정부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 때에도 정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자고 했고 그래서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면서도 포용정책의 장점도 받아들이겠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자꾸 겉도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중국 해관총사라고 있지요? 무역통계 내는 기관 말입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종대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6월 중에 북·중 무역액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대북 국제공조에 의한 제재의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 5월에는 북·중 무역이 일단은 통계상 줄어든 것으로 나왔고 6월에는 또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제재효과와 관련해서는 이런 무역통계 외에도 또 북한이 지금 그런 제재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실제로 본인들도 스스로 얘기하는 부분, 외교적 고립이라든지 금융 제재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자료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대해서 낸 중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이행보고서입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종대 위원 이것이 6월 29일 날 유엔 안보리에 도착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봤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이 제목 빼고 총 4장짜리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각 기관과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는 안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 대해 가지고 중국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봤습니까, 아닙니까? 혹시 NSC 상임위 같은 데에서 이 문제 논의하신 적 있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는 NSC를 포함해서 필요한 기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행보고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세 줄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요. 나라별……

○김종대 위원 아니, 열여섯 줄이에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세어 봤는데 제목 빼고 열여섯 줄인데 내용이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고요. 그런데 이행보고서와 또 실제 이행이 되는 부분하고는 또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만 놓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보고서가 아니라 그 효과성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엄밀하게 어떤 정확한 판단을 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혹시 이것은 제가 약간 가설적인 질문입니다마는 7월 7일 날 NSC 상임위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그 배경에는, 국제공조에 의한 제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특히 중국 러시아의 제재 역할이 매우 크다면 굳이 7월 7일 날 사드 배치 결정을 해야만 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사드는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특히 무수단 발사 등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고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없다 별개의 사안이라 이것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래서 사드는 사드대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이고요. 또 이 제재는 제재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직접 어떤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뜻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중에 또 따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한을 제재하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

일 때문에 제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통일부가 영유아 지원이라든가—이것은 주로 우유 주는 것입니다—또 백신—이거 전염병 예방하는 것이지요—이것이 중단된 것이 핵·미사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영유아 지원, 의료·의약품 지원은 지속한다라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저희가 승인할 것은 승인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시급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강화도에 휴가여행 갔다 오신 분 헌혈 못 하는 것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종대 위원 경기북부에 휴가 가신 분들 보건소에서 헌혈 안 받아주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김종대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말라리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말라리아라는 것은 북한에서 내려온 모기 때문이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에요. 옛날에는 거기서 내려왔는데…… 시작은 거기에서 그랬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쪽 지역에 말라리아가 많이 살고 있고요……

○김종대 위원 아니, 주로 접경지역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접경지역인데요. 방역 문제는 과거에, 지금도 또 다른 국제 지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북한이 거부를 해서 지원을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 지원이 되어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재 국면에서도 영유아 지원이라든가 백신 지원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얼마 전에 유진벨에서 결핵약 올라가는 것 승인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혜 위원 장관님, 독일 통일이나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체제 이탈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보면 탈북자의 입국 인원이 2만 9000명, 약 3만 명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언제부터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이제까지 입국한 탈북자들의 총 누적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연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에 6개월, 그러니까 한 6, 7개월 동안에 814명이네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러면 최근 들어서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급격히 증가된다기보다는 작년의 추이와 비교했을 때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가 한 2010년 정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좀 하락세로 있었고요. 작년에 특히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하락을 했는데 올해는 현재 6개월까지를 따져 보면 한 15% 이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것이 북한의 그런 경계태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탈북하려는 의지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보시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국경지대에서 북한의 경계가 강화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인과관계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리고 하여튼 아까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탈북자 유형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보면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이 좀 많았다 그러다가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이런 소위 엘리트층의 탈북 현상이 벌어지고 있

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나 압박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의 탈북 유형이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생계형, 이민형, 이주형 얘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어쨌든 어렵거나 해서 피동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능동적으로 좋은 삶과 자유를 찾아서 오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최근의 일부분은 그런 제재로 인한 어려움이 또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연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엘리트층의, 이것이 단순한 몇 가지의 사례들이지만 이것이 북한의 엘리트층이나 동요로 이어지고 또 체제의 동요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이럴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컨대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 탈북 사실을 북한 주민들은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현재까지는 북측이 외부로만 나가는 통신사를 통해서 입장을 그저께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는 아직 모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아마 태영호 공사 같은 그런 사례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전파되고 이러면 조금 더 북한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체제에 대한 동요나 압박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시 안정화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듯이 이번에 태영호 공사의 이런 상황도 결국은 그런 하나둘의 단편적인 사례로 그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쎄요, 전반적인 추세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이런 새로운 유형과 또 고위층의 탈북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도 일단은 대내적으로 알리지를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이제 태영호를 범죄자로 몰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부에 알려졌을 경우에도, 아마 앞으로 결국 알려지게 될 것 같고요, 알려졌을 경우에도 이 사람이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것이 아니고 범죄자라서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하여튼 저는 결국 이런 사건들이, 이런 사례들이 뭐 한두 개에 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큰 산사태와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에서는 사실은 뭐 국정원과도 협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밝히시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탈북자들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 또 북한사회에 역으로 정보가 흘러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 봤지만 결국은 북한과의 대화나 평화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재와 압박 이것이 우리의 불가피한 전략 중의 하나로 택하고 있는 통일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최연혜 위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런 여러 상황을, 우리가 결국 목표를 평화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신변안전 보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다른 도미노현상이 따라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빨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했나 하는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사실은 저희들이 탈북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라기보다는 확인을 해 주는 정도인데요. 항상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신변안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져서 그것을 확인을 안 해 줄 경우에 오히려 불필요한 추측만 커진다고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범위로 확인만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여섯 분 계십니다. 간사 간의 합의로 5분 정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계속해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아니면 좀 쉬었다 하실까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예,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5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 통일부에 참, 통일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부처 이기주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승부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광범위하게 지금 조직이 구성돼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우리 통일부하고는 어떤 연관, 어떤 정책 협의를 하고 또 어떤 협력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해외 자문위원들도 엄청나게 많아서, 매년 대통령께서 의장이시기 때문에 주재하에서 운영위원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여기에 통일부가 어떤 좀 도움을 드리는지, 아니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정책 건의하는 것을 통일부에서 정책으로 반영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최근에 들어서 민주평통하고 통일부는 굉장히 긴밀히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고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통은 워낙 조직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정책을 좀 더 많은 국민들과 해외교포들한테 알리는 데 있어서 평통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평통으로부터 올라온 여러 가지 여론들을 저희들이 정책을 세우는 데 참고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저도 최근에 8월 13일 날 일본 효고현, 고베시가 있는, 민단 초청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해외교민들께서는, 해외교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자문위원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상당히 갖고 있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제안들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조국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 모시고 식사 한 번 하고 그냥 이렇게 건의 몇 번 듣고 정책설명회 하는 것으로 그쳐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통일부가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또 정책을 확산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통일준비위원회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일준비위원회하고 우리 통일부하고는 어떤 협력관계를 갖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크게 보면 통일준비위원회랑 민주평통이랑 통일부랑 같이 삼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통준위와, 일단 얘기를 하면 통준위는 주로 전문가들, 민간의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다만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통일부의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정책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일부가 추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위원 작년에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지금의 평화적인 방식이 아닌 북한 붕괴와 관련해서 다른 방식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흡수통일론 등등 이런 추측 보도들을 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당시에도 정종욱 부위원장께서 해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표현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통일준비위원회 내에 어떤 흡수통일이나 붕괴를 준비하는 그런 팀은 없습니다.

○김두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던 분께서 아침 조찬간담회에서 그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

런 점을 우리 장관님이나 또 차관님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될 것으로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유념해서 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 시간 1분 더 쓸 수 있나요?

○위원장 이춘석 1분 더 주시지요.

○김두관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방외교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 수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관계가 터졌는데, 그 당시 국제적 관계를 정확하게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만약 가정해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했더라면 지금 남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을 것 같습니까? 좀 가정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뭐 글쎄요, 가정해서 참 답해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당시에 그때 교차수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었고, 그때 사실은 목표도 그거였는데요. 또 그 이후에도 그래서 교차수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학문적인 논의도 있었고. 그렇게 됐다면 조금 더 당시로서는 평화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예상해서 말씀드리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두관 위원 베트남이 어쨌든 무력통일이지만 통일된 지 41년, 독일이 26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통일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남북개선특위의 역할이 있을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참 화도 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 감정으로 생각하면 약도 오르고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만일에 북한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그 가정하에서 우리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론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통일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쭉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쎄요, 그 역시 가정을 해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설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하지 말고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교류밖에 없어요. 유일한 처방이 그겁니다.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떤 해법으로 가느냐? 단기적인 처방은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핵을 포기시키려고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처방이 있을 수 있느냐? 결국 교류예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장기전으로 가는 그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빠른 방법일 수 있어요, 교류를 통한 방법이.

교류는 아시는 대로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간의 교류도 있고 문화·경제·사회 각계각층이 교류를 해내다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거지요.

소비에트러시아 소련이 수천 발의 핵을 가지고도 한 발도 못 쏘고 망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했느냐? 국민이 결국 해결했어요. 소비에트러시아가 독재국가였지만 결국 국민이 해결했어요. 북한? 지독한 독재국가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사람이 살고 있는 데예요. 그것도 국민이 해결하도록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그거고, 그리고 그게 길게 보일 거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확신해요.

북한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왜? 리비아의 카다피가 망하는 걸 보고, 중동이 저렇게 되는 걸 보고, 물론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 측이.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고 나니깐 카다피가 저렇게 망하더라, 우리도 핵 포기하면 저렇게 망한다…… 북한은 김정은이 곧 국가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핵 포기 안 해요, 아무리 졸라매더라도. 200만 명인지 언젠지 모르지만 아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졸라매고 우리가 졸라맨다 하더라도 버텨 낼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에 그렇다면 꼭 그 방법을 써야만 되느냐? 물론 아까 제가 전제했듯이 약이 오르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걸 참고 넘기면서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정책을 취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어요.

미국이 하는 대로 계속해서 졸라매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방법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단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류해야 돼요. 교류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저쪽이 두려워하는 게, 두려워할 수 있는 게 교류라고 생각해요.

그 전제하에서 지금 북측이 대화 제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였습니까? 장관 말씀해 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북쪽이 대화하자고 한 게 언제였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지난 5월 당대회 직후에 군사회담을 제안했었던 경우입니다.

○설훈 위원 그게 가장 최근입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화를 공식적으로 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것은 그때가, 그즈음이고요. 그 이후에 무슨 통일대축전이라든지 뭐……

○설훈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화를 지금 제의하고 있어요. 저쪽이 핵을 가지고 장난을 치든 압박을 피해 가기 위한 수단이든 어쨌든 간에 대화를 제의한다면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생각해요. 우리는 저쪽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쪽이 대화하자는 걸 다 받아 줘도 아무 상관없다 생각해요. 해 보자 그래, 너 무슨 소리하느냐, 해 보자, 그게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다 일일이 들어줘도 괜찮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봐라, 해 보자 그래라는 그런 자세가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놀아 가지고는 아무 해결이 안 된다 생각해요. 왜? 우리가 그럴 정도로 위에 있어요.

지금 통일부장관으로서 북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 일반은 아마 제 견해에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북한하고 어떻게 게임이 되느냐, 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라고 그래 봐라, 대화를 해 봐라, 그게 허위 수단이든 뭐든 얘기를 해 봐라, 판단은 국민이 한다, 나는 거기에 방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일 믿는 구석은 우리는 국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대화에 자신감을 갖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대화하자고 그러면 그래 해 보자, 이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쟁 중에도 대화합니다. 아무리 4차 핵 했다 하더라도 대화하자 하면 하세요. 왜 그걸 못 하느냐고. 하다가 보면 저쪽이 어차피 나오잖아요.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전제가 교류라고 생각할 때 대화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각종 대화를 다 열어 놓으면 저절로 해결돼요.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다고 미리 저희가 지레 겁먹고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는 그 노력조차 포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 두려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 대화를 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진짜 인정해 주는, 그래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저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 포기, 만들어 낼 수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화를 두려워서, 우리가 모자라서 안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화 필요하고 할 때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훈 위원 그 끝이 언제예요, 그 끝이? 그 끝이 언제냐고, 끝이. 그 끝이 있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러니까 북한과,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지금 북한은 핵 문제는 대화를 안 하겠다, 그거는 대화의 의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하고 섣불리 대화를 시작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설훈 위원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갈 겁니까?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지요.

○설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장관님, 통일교육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20대는 30%, 30대는 35%, 40대는 52%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가장 낮습니다. 1990년대 정도만 해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약 80%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점점 세대가 젊어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률이 낮게 평가되는지, 장관님 어떻게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퍼센티지는 좀 조사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율이 낮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랑 많이 토론도 해 보고 얘기도 해 봤는데요. 통일 필요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필요는 하는데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지금 통일을 하면 뭔가 자기가 피해를 본다, 내가 뭔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는 것 같고 저런 북한이랑 꼭 통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명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관련 어떤 교육제도, 교육시스템 이런 것들도 부족하고 또 대학생들한테 통일교육 이런 데 참여해 본 적 있느냐, 경험 있느냐 물어보면 거의 80% 정도가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물론 작년까지는 그렇다, 금년도에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이런 데 통일 관련 교육, 어떤 교육기관, 오늘 업무보고에도 제시를 하셨지만 통일교육주간이라든가 또 통일교육 선도대학 임명 이렇게 해 가지고 통일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저는 이런 것들에 포함해 가지고 교사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이 낮으면 학생들이 배울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점점 젊어질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의식이 낮아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원 양성 대학, 기관 이런 데 어떤 통일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과목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조직화하면, 필수화하면 통일에 대한 의식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 지금 통일교육 강사진들도 많이 양성하는데, 저도 국회 오기 전에 청소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제가 받은 교육 중에 '여러분들은 2000년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때는 저는 뜬구름 잡는 얘기같이 들렸지만 2000년대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도 지난 30여 년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2000년대의 주인공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을 다닐 때 '여러분들은 통일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면서 교육을 하니까 반응도 또 호응도 이렇게 있었는데, 우선 교사들이 통일의식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학생들한테, 그래서 점점 젊은 세대, 우리 세대들이 그렇게 확산돼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사실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도 교육을 위한 교재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꼭 정책에 반영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1년 전엔가 '베를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기억이 최근에 외교관이 들어온 것 연관돼 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영화를 그전에 잘 만들었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주시면서, 영국의 언론에서 이걸 보도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윤후덕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장관님이 "잘못된 보도 또는 추측으로 쓴 기사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추측이에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쎄, 그것을 지금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일부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추측성인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매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쓰는 그런 매체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추측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 꼭 장관님께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망명이거나 탈북이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의 최종 귀착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 사람의 경우?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것은 당연히 있다고……

○윤후덕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물어봐요, 적극적 의사를 표현하고?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것은 채널을 통해서 의사 확인을 하고요. 당연히 본인이 원하는 국가로 가게 되어 있지요.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에 오겠다는 의사를 본인이 피력을 했고, 우리 정부에 그게 전달이 된 거네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본인이 원했으니까, 본인이 원치 않는데 해외 제3국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 경우 상당히 고위급이고 영국이라는 데에서 한 10여 년 정도 통치자금도 어떻게 해 보고 그랬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데 정보기관에서 상당히 탐내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미국에서 좀 당겨 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글쎄, 그런 부분까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조금은 확인해 줘야 돼요. 외신에 나온 내용들을 국내 언론이 그대로 다 받아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의 이를테면 골프장에서 의사를 피력해서 그것을 하고, 미국 정보기관하고 해서 독일로 가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러는데 그 보도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글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까지, 독일의 미군 비행장에서 한국에 올 때까지 한국 정부는 그냥 들어오는 것 받은 것만 한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에 주권국가로서 같이 협의를 하고 정보에 대해서 공유한 건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주니까 받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후덕 위원 그것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언론에 나온 것이 맞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린 거고요. 다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은 개인 신상정보의 노출이라든지 정보의 노출로 이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 좀 확인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영국서부터 보도가 안 나오게 했어야지요. 그건 영국 정부에다 의뢰를 안 했나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영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보도 나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자분들이 열심히 찍어서 보도를 하는데, 그래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것이 추측성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또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독일까지 간 것은 아니었다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것을 저희가 일단 한국에 들어왔고, 이런이런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확인해 드린 거고요. 그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해 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결국은 다 확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도 어렵지만 일정 수준에서 어쨌든 확인을 해 드리고 더 이상은 확인해 드리지 않는 이런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 어제 브리핑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테러단의 테러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접 지시한 게 사실인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정보를 지금 입수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지요, 발표를 했으면.

○통일부장관 홍용표 어떤 정보라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동향을 입수했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하나만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예요, 8페이지. 중간 하반에 대미 선제 핵공격 능력 강화 등을 강조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원인을 미국에 전가하며 대미 선제 핵공격 능력 강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북한이 핵으로 미국에 대한 이런 위협을 하는 것은 다반사로 하고 있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남쪽에 대해서 핵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협박이나 위협을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돼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7~9일 당대회 할 때도 '핵 뇌성을 울리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핵 타격, 핵 위협, 핵 불바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동미사일 발사할 경우에는 저희 탄착지점까지 지정을 하고 있고, 그때 핵, 어쨌든 말로는 핵탄두 탑재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위협이 노골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인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비핵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게 남쪽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북한에서 위협 주장하고 그렇게 공갈친 것에 대한 죽 리스트 있지요? 몇 월 며칠 자,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다든지 보도했다든지……

○위원장 이춘석 정리해 주시지요.

○윤후덕 위원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좀……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금방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정양석입니다.

얼마 전 8·15 광복 71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북한 주민을 향한 메시지를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 때문에 여러 언론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주민들과 하급 간부들을 겨냥해서 실질적인 대북 통일 정책을 가동을 한 것이다, 또 사실상 흡수통일을 암시한 것이고 앞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모종의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메시지가 효과가 있으면 많은 탈북 주민들이 또 태영호 공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오게 되는데 우리 사회가 과연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분들이 정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분위기가 되어 있나…… 아까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는 의사 출신 탈북자가 빌딩 청소를 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했고, 또 대부분 탈북자의 80%가 여성들인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살다 보니까 성매매라든가 그런 범죄의 유혹에도 빠진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물론 많은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통일부나 정부의 지원 아래 안정적인 직장생활 혹은 생계를 영위하고 있을 텐데 이런 대표적 기사들이 과연 한국을 가기를 바라는 탈북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아울러서 통일부는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어느 프로세스까지 이분들의 정착을 도울 수 있겠는가, 또 우리 정부 내에 통일부가 입국해서 조사가 끝나고 또 사회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 나머지는 또 복지부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장관께서 이제 시스템화 해야 되겠다.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면 통일부 현재의 인력과 직제 가지고 이것을 다 어떻게 언제까지 케어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이 듭니다.

이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여기에서 태어나서 언어와 문화와 학력

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분들도 정말 힘들어 하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탈북자에 대한 그런 관심이, 또 뉴스가 크게 보도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아울러서 좀 미묘합니다만 지난번 대통령의 메시지나 그다음에 지난번에 드레스덴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 메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박근혜정부가 공공연하게 흡수 통일정책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북한이 좋아하겠느냐, 북한지도자들이.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또 그런 시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혹은 통일부장관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과연 대화를 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북한 주민 정착과 또 이런 흡수 통일정책에 대한 일부 오해 이런 데 대해서 시간이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매매라든지 범죄, 이런 것들이 국민 전체의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탈북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 조금 더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편견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누가 이것을 담당해야 되느냐? 과거에도 논쟁은 있었습니다만 통일부가 하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북한에서 온 주민들이고, 실질적으로 결국은 행자부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돈, 제도뿐만 아니라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는 솔직히 통일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탈북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탈북민대책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 열몇 개의 기관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자체랑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으로 갔을 때는 복지부나 지자체 이런 등과의 그런 협의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점검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흡수통일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정부의 기본적인 통일 목표는 평화통일입니다. 이번 8·15 기념사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북한한테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로 나와라' 그리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흡수통일을 원한다면 그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건 평화통일이고, 다만 우리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꼭 필요한 것은 비핵화다. 그래서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같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평화통일을 이룬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훈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설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추가질의시간은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5분만 줘요, 할 사람 많은 것 같지도 않으니까. 5분 안에 끝낼게요.

○위원장 이춘석 원래 보충질의까지만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건데요.

○설훈 위원 이것은 제가 꼭,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춘석 괜찮겠습니까, 정양석 위원님?

○설훈 위원 끝낼 것 같습니다.

○정양석 위원 5분 내에 끝내 주시면……

○설훈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석 설훈 위원님만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외통위가 열리면 자주 할 수 있는데 안 열리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1월 신년사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양의 누구와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지요. 했는데, 전시 중에도 대화는 합니다. 우

리 휴전회담 할 때도 그랬었고, 적군과는 항상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쯤 대화 채널을 가동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비밀대화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그것 안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참 나는 그것 할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해서 누가 손해 보느냐? 손해 볼 쪽은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비밀대화라면 모르니까 어느 쪽도 손해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데 대화 채널을 가동시켜야 돼요. 국민들이 남북관계 대화하고 있다, 몰라요 비밀이니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런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어리석어요. 지금쯤은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 우리 터놓고 얘기해 보자,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이 하실 역할 중의 하나가 그런 겁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 안 하면…… 대통령이 싫어할지 몰라도 싫어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정부 내에서 강경파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해야 돼요, 그것을.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얘기했고요. 작년에 사실은 정부의 입장이, 아까 79년 신년사에 나왔던 것 비슷하게 누구든, 어떤 형식의 대화든, 어떤 주제에 대한 대화도 할 수 있다라고 1월 초부터 정부가 발표했고 그 입장을 계속 유지를 했고 북한한테 여러 번 대화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8월까지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와 교류를 설훈 위원께서 강조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이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대화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지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고 비핵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훈 위원 6·25 전쟁 이후로, 6·25는 남침입니다. 저쪽에서 쳐들어 왔습니다. 원천적인 잘못이 북쪽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성장해 왔습니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내가 몇 번 말했습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아무 손해 볼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나가려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을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끄집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대화 테이블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하라는 얘기는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정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지 이유는 내가 알아요. 그것은 일종의 고집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통일부 쪽에서는 또는 다른 쪽에서는 비밀대화라도 하셔야 돼요. 하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해 보세요. 비밀 대화인데 손해 볼 게 뭐 있어, 국민들은 모르는데.

꼭 그것을 하도록 부탁하세요. 장관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통일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백재현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통일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가진 날로써 위원님들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철학을 피력하시고 또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엄중한 시점에 열린 회의였던 만큼 통일부에서는 남북문제와 통일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셔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 기조 등 우리 정부의 여러 정책적 사항과 관련하여 여야 위원님들 상호간에 접근 방식이라든지 시각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각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간담회나 공청회 같은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잘 받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기동민	김두관	김성원	김순례
김종대	김종석	백재현	설훈
윤후덕	이용호	이종명	이춘석
전해철	정양석	최경환(국)	최연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배용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통일부

장관	홍용표
차관	김형석
기획조정실장	김의도
통일정책실장	김남중
정세분석국장	이무일
교류협력국장	강종석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	이상민
남북회담본부장	한기수
통일교육원장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장	임병철
남북출입사무소장	이정옥